

아라비안 나이트

《아라비안 나이트》의 기원에 대해서는 많은 학설이 있지만 6세기경 페르시아 사산 왕조 때의 고대 설화집 《천의 이야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는 것이 정설이다. 여기에 다시 수많은 이야기가 추가되고 개작과 윤색을 거듭, 13~15세기경 현존하는 형태로 완성되었다. 《아라비안 나이트》는 모두 아랍어로 기술되었고 이슬람 사상을 밑바탕으로 하고 있다. 작자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지만 광범위한 지역적 배경과 다채로운 소재로 보아 한 사람의 작품으로는 보기 힘들 것 같다. 다양한 이야기와 인간 세상이면 어디에나 있을 법한 진솔한 내용으로 재미도 재미지만 지혜와 교훈이 담겨 있어 작품성도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야기 구성은 전체가 하나의 커다란 틀 속에 들어 있는 액자 형식이다. 인도와 중국까지 통치한 사산 왕조의 샤리아브 왕이 아내에게 배신당하자 매일 신부를 맞이하여 그 다음 날 신부를 죽인다. 그 나라의 한 대신에게 샤흐라자드라는 착한 딸이 있었는데, 자진해서 왕과 결혼하고 첫 날 밤 왕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 준다. 이어지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마음에 왕은 샤흐라자드의 처형을 하루하루 미루게 되고 이야기는 1001일 동안 계속된다. 알라딘과 요술램프,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 신드바드의 모험 등 우리에게 친숙한 여러 이야기들이 모두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

「**알라딘과 요술램프**」 알라딘은 게으름뱅이에다 동네 말썽쟁이다. 어느 날, 알라딘은 자신의 삼촌이라고 하는 한 마법사를 만난다. 산 속으로 알라딘을 데리고 간 마법사는 커다란 바위로 가려져 있는 동굴 입구를 가리키며 알라딘에게 그 곳으로

들어간 램프를 가져오라고 한다. 램프를 찾은 알라딘이 자기를 먼저 꺼내 주지 않으면 램프를 주지 않겠다고 하지, 화가 난 마법사는 알라딘을 동굴에 가둬두고 가버린다. 동굴 속에서 며칠을 신음하던 알라딘은 동굴에 갇히기 전에 마법사에게서 받은 황동반지를 우연히 문지르게 되는데, 그 순간 반지의 요정이 나타나고 이때부터 알라딘에게 아주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

가난한 알리바바는 오늘도 산에서 나무를 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저 멀리 먼지바람이 일더니 도둑 떼가 몰려왔다. 알리바바는 재빨리 나무 위로 올라가 몸을 숨겼다. 숨을 죽이고 지켜보니 그 곳은 도둑들이 보물을 숨겨놓은 곳이었고, 그 문을 열 수 있는 비밀 주문을 듣게 된 알리바바는 동굴로 들어가 많은 보물을 가져 나와 부자가 된다. 이제부터 도둑들과 그 도둑들의 비밀을 알고 있는 알리바바 사이의 싸움이 시작되는데 그 첫 희생으로 형이 살해된다. 하지만 이들의 싸움은 모르지아나라는 아주 지혜로운 하녀의 도움으로 행복한 결말로 끝이 나게 된다.

알라딘의 요술 램프

[제 1 장] 사악한 마법사

p. 12-13 옛날에 알라딘이라는 게으른 소년이 살았다. 그는 하루 종일 친구들과 놀곤 했다. 알라딘의 어머니는 아들 때문에 속이 상했다. 그녀는 울며 기도하곤 했다. 그녀는 아들이 행동거지를 바꾸길 비랐다. 그러나 알라딘은 절대 바뀌지 않았다.

어느 날 한 남자가 알라딘에게 오더니 “네가 무스타파의 아들이냐?”라고 물었다. “그런데요. 하지만 아버지는 오래 전에 돌아가셨어요.”라고 알라딘은 대답했다. 그 낯선 사람은 이 말을 듣고 알라딘에게 입을 맞췄다. 그는 말했다. “난 네 삼촌이다. 네가 형을 낳았을지 모른다고 생각했단다. 집에 가서 어머니께 내가 올 거라고 말씀드려라.” 알라딘은 집으로 달려가 어머니에게 말했다.

p. 14-15 “그래, 네 아버지에게 남동생이 하나 있었단다.”라고 그의 어머니는 말했다. “하지만 나는 그가 죽은 줄 알았는데.” 그녀는 몇 가지 음식을 준비했다. 삼촌이 그들의 집으로 왔다. 그는 알라딘의 어머니에게 “놀라지 마세요. 당신은 나를 모를 거예요. 저는 40년 동안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었답니다.”라고 말했다.

알라딘은 그를 데리고 도시 전체를 돌아다녔다. 그들은 함께 모든 명소들을 구경했다. 그의 삼촌은 알라딘에게 멋진 옷들을 사주었다. “알라딘, 네게 할 말이 있단다.”라고 삼촌은 말했다.

“난 네 삼촌이지만 마법사이기도 하단다.” 알라딘은 이 말을 듣고 흥분했다.

p. 16-17 다음 날 마법사는 알라딘을 두 개의 커다란 산 사이에 있는 골짜기로 데려갔다. “에게 멋진 것을 보여 주마.”라고 삼촌이 말했다. 그 마법사는 주문을 외웠다. “수리수리마수리!” 그들 앞에서 땅이 흔들렸다. 마술처럼 황동 반지가 나타났다.

“황동 반지 밑에 보물이 있단다. 그건 네 것이 될 거야. 하지만 넌 내가 말하는 대로 해야 한다.” 알라딘은 ‘보물’이라는 말을 듣자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반지를 집어라.”라고 마법사가 말했다. “이제 네 아버지의 이름을 말하거라.” 알라딘은 들은 대로 했다. 반지가 문 하나를 열었다. 몇 개의 계단이 나타났다.

p. 18-19 “동굴로 내려가기라.”라고 마법사가 말했다. “기기에 램프가 보일 것이다. 그것을 집어서 내게 가져오 라.” 알라딘은 동굴 안으로 내려갔다. 그는 정원에서 램프 하나를 발견했다. 그는 그것을 집어서 동굴 입구로 가져갔다. “서둘러. 내게 그 램프를 다오.”라고 마법사가 소리쳤다.

“제가 동굴 밖으로 나가면 드릴게요.”라고 알라딘은 대답했다. 마법사는 매우 화가 났다. 그는 주문을 외웠다. 문이 닫혔다.

그 남자는 실제로 알라딘의 삼촌이 아니었다. 그는 사악한 마법사였다. 그는 알라딘을 이용하려고 그를 선택했다. 그는 램프를 손에 넣고 나면 알라딘을 죽일 계획이었다.

p. 20-21 알라딘은 이틀 동안 어두운 동굴 속에 있었다. 그는 기도를 하기 위해 두 손을 같이 문질렀다. 손을 비비면서 그는 황동 반지도 문질렀다. 기다란 요정이 나타났다. “저는 반지의 요정입니다. 무슨 소원이든 들어드리지요.”라고 그 요정은 말했다. “나를 이 동굴에서 나가게 해다오.”라고 알라딘은 말했다. 땅이 열리더니 마법처럼 알라딘은 밖에 나와 있었다.

알라딘은 밖으로 나오게 되어 너무 기뻐했다. 그는 가능한 한 빨리 집으로 달려갔다. 그는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했다. 알라딘은 어머니에게 램프를 보여 주었다. 이제 그는 배가 고파지만 먹을 것이 없었다. “제가 이 램프를 팔아서 음식을 사 올게요.”라고 그는 말했다.

p. 22-23 램프는 아주 더러웠다. 알라딘의 어머니는 램프를 닦기 시작했다. 그녀는 먼지를 문질러 닦았다. 그러자 또 다른 요정이 램프에서 나타났다. “무엇을 원하니까?”라고 요정이 물었다.

알라딘의 어머니는 너무 놀라 기절했다. 알라딘은 램프를 움켜잡았다. “내게 먹을 것을 가져와라!”라고 그는 명령했다. 요정은 고기가 가득 담긴 12개의 은그릇을 가지고 돌아왔다. “제발 그 램프를 팔아라.”라고 그의 어머니는 애원했다. “이 요정은 악마란다!” “싫어요, 그걸 수 없어요.”라고 알라딘은 말했다. “우린 이 램프를 가지고 있어야 해요. 필요할 거예요.”

[제 2 장] 아름다운 공주

p. 26-27 어느 날 왕이 백성들에게 얘기했다. “모두 집 안에 머물러 있거라. 문과 창문은 닫아 두어라. 짐의 딸이 목욕탕에 다녀 올 것이다.”라고 왕이 명령했다.

알라딘은 아주 호기심이 생겼다. 그는 공주의 얼굴을 보고 싶었다.

알라딘은 목욕탕 문 뒤에 숨었다. 그는 공주가 목욕탕에 들어갈 때 그녀를 보았다. 그녀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는 곧 그녀에게 반하고 말았다. 그는 집으로 가서 어머니에게 말했다. “전 공주님과 사랑에 빠졌어요. 제발 어머니, 임금님에게 가서 제가 공주님과 결혼하고 싶어 한다고 말씀해 주세요.”라고 간청했다.

p. 28-29 램프의 요정은 그들에게 보석을 주었다. 알라딘의 어머니는 그 보석을 작은 수건에 썼다. 그녀는 궁전으로 갔다. 왕과 최고 고문관은 커다란 홀에 있었다. 그녀는 들어가서 문가에 섰다. “한 여인이 문 앞에서 있는 게 보이는구나.”라고 왕은 말했다. “그녀를 불러라. 그래야 짐이 그녀가 무얼 원하는지 알 수 있을 테니 말이다.” 알라딘의 어머니는 왕에게 절을 했다. “일어서라, 착한 여인아. 짐에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왕이 물었다. “제 아들 알라딘이 공주님을 연모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그 아이는 공주와 결혼할 수 없다면 죽어 버리겠다고 했습니다.”

“그 수건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왕이 물었다. “이것은 임금님께 바치는 보석입니다.”라고 그녀는 작은 수건을 펼치며 말했다.

p. 30-31 왕은 놀랐다. 보석들은 아주 값진 것들이었다. 그는 최고 고문관에게 몸을 돌렸다. “자네 생각은 어떤가? 이 정도면 공주와 알라딘의 결혼을 허락하기에 충분하지 않은가?”

최고 고문관은 자신의 아들이 공주와 결혼하길 바랐다. “부탁입니다. 이 결혼을 허락하시기 전에 세 달만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그는 애원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왕에게 진상할 더 큰 선물을 마련

할 수 있길 바랐다. 왕은 승낙했다.

최고 고문관은 자기 계획을 알라딘의 어머니에게 숨겨야 했다. “당신 아들은 공주와 결혼할 수 있소. 그러니 세 달 뒤에 다시 오시오.”라고 그는 알라딘의 어머니에게 말했다.

p. 32 알라딘은 끈기 있게 두 달을 기다렸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어머니가 먹을거리를 사러 도시로 갔다. 큰 잔치가 열리고 있었다. “모두들 뭘 축하하는 거죠?”라고 그녀는 물었다 “모르세요?”라는 말이 대답이었다. “최고 고문관의 아들이 오늘밤 공주와 결혼을 한답니다.” 그녀는 달려가서 알라딘에게 말했다. 처음에 그는 정말 화가 났다. 그리고 나서 그는 램프를 떠올렸다. 그가 램프를 문지르자 요정이 나타났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라고 요정이 말했다. “오늘밤 신부와 신랑을 내게 데려 오라.”라고 알라딘은 대답했다. “분부대로 하겠습니다.”라고 요정이 말했다. 그런 다음 알라딘은 자기 방으로 갔다. 그곳엔 공주와 그녀의 새 신랑이 있었다.

p. 34-35 “이 남자를 데려가거라.” 하고 알라딘이 요정에게 말했다. “그리고 그를 추운 바깥에 두거라. 내일 아침에 그를 돌려 보내도 좋다.”

요정은 최고 고문관의 아들을 데려갔다. 알라딘은 공주와 단 둘이 남았다. “두려워하지 마세요.”라고 알라딘은 그녀에게 말했다. “당신은 나의 아내요. 당신의 아버지가 내게 약속했어요. 난 당신을 해치지 않을 기예요.”

다음날 아침 공주는 자기 아버지에게 모든 걸 말했다. 왕은 최고 고문관의 아들과 얘기를 나눴다. “그건 사실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저는 공주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또 그런 밤을 보내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전 그녀 곁을 떠나고 싶습니다.” 왕은 그의 바람을 들어 주었다.

p. 36 세 달이 지난 후 알라딘의 어머니는 궁전으로 갔다. 왕이 말했다. “착한 여인이여, 그대의 아들에게 내 딸과 결혼해도 좋다고 얘기하라.” 그녀는 곧장 집으로 돌아가서 알라딘에게 말했다. “서둘러라. 왕께서 너를 기다리고 계신다.” 알라딘은 요정을 불렀다. “내게 최고로 멋진 궁전을 지어 달라.” 궁전은 다음날 완성되었다. 알라딘과 공주는 결혼을 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알라딘은 그녀를 자신의 궁전으로 데려갔다. 알라딘은 왕의 군대의 지휘관이 되었다. 그는 왕을 위해 몇 번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그는 여러 해 동안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았다.

[제 3 장] 사악한 마법사가 돌아오다

p. 40-41 사악한 마법사는 아주 멀리 아프리카에서 살고 있었다. 그는 알라딘이 동굴에서 빠져나가 공주와 결혼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가 요정의 도움을 이용하고 있군.”이라고 마법사는 혼자 중얼거렸다. “그 램프를 가져야겠어. 그리고 알라딘을 다시 가난뱅이로 만들어 버리겠어!”

그 마법사는 12개의 램프를 샀다. 그는 궁전으로 갔다. “현 램프를 새 램프로 바꿔 드립니다!”라고 그는 외쳤다.

불행히도 알라딘은 사냥 중이었다. 이 소리를 듣자 공주는 알라딘의 요술 램프를 집어 들었다. “이 걸 가져가서 저 노인한테 바꿔 오라.”라고 그녀는 하인에게 명령했다.

p. 42-43 하인은 그 램프를 마법사에게 주었다. “램프를 고르시오.”라고 그는 그녀에게 말했다. 그런 다음 그는 그 램프를 가지고 도시를 떠났다. 그는 램프를 꺼내 문질렀다. 요정이 나타났다. “요정이며, 알라딘의 궁전과 공주 그리고 나를 아프리카의 조용한 곳으로 데려다다오.”라고 마법사는 명령했다.

다음날 아침 왕은 창밖을 내다보았다. “알라딘의 궁전이 사라졌어!” 하고 그는 소리쳤다. 왕은 화가 났다. “알라딘을 데려 오라.”라고 왕은 명령했다.

병사들은 알라딘을 찾아내서 그를 끄꽂 묶었다. 그들은 그를 왕에게 데려갔다.

p. 44-45 “넌 사기꾼이다.”라고 왕이 말했다. 그런 다음 그는 알라딘에게 그의 궁전이 있던 곳을 보여 주었다. 알라딘은 너무 놀라서 한 마디도 할 수 없었다. “의 궁전과 내 딸은 어디 있느냐?”라고 왕은 다그쳐 물었다. “그 아이를 찾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네 머리를 베어 버릴 테다.” “제발, 제게 40일만 주시오. 그러면 그녀를 찾아오겠습니다.”라고 알라딘은 애원했다. 왕은 알라딘의 청을 들어 주었다.

알라딘은 손가락에 끼고 있던 황동 반지를 문질렀다. 요정이 나타났다.

“무얼 원하니까?”라고 그가 물었다. “내 아내와 궁전을 되돌려다오.”라고 알라딘은 간청했다. “전 그걸 할 수 없습니다.”라고 요정은 말했다. “램프의 요정에게 부탁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나를 그 궁전으로 데려가시오.”라고 알라딘은 부탁했다.

p. 46-47 마술처럼 알라딘은 아프리카에 있는 아내의 창문 밑에 나타났다. 공주는 그를 보고 재빨리 창문을 열었다. “알라딘, 정말 보고 싶었어요.”라고 공주는 외쳤다. “공주.” 알라딘이 말했다. 그 램프는 마법 램프야. 그 램프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내게 말해 주시오.” 그녀는 그에게 램프를 바꾼 걸 얘기했다.

“지금 램프는 어디 있소?”라고 알라딘이 물었다. “그 나쁜 사람이 항상 램프를 가지고 다녀요.”라고 공주는 대답했다. “그는 제가 당신을 잊고 자기와 결혼하길 바라요. 그가 당신을 보면 해치려고 할 거예요.” “걱정 말아요. 모든 게 잘 될 거요.”라고 알라딘은 말했다. 그런 다음 그는 마을로 갔다. 그는 어떤 가루를 사서 공주에게 돌아갔다.

p. 48-49 “내 말대로 해요.”라고 알라딘은 공주에게 말했다. 그녀는 알라딘의 말을 주의 깊게 들었다.

마법사가 왔을 때 공주는 그를 따뜻하게 맞았다. “이제 알라딘이 죽었다는 걸 알았어요. 난 더 이상 그를 기다리며 울 수 없어요. 그래서 당신과 저녁을 먹고 싶어요. 제게 포도주 좀 가져다 주시겠어요?”

마법사는 포도주를 가지러 달려갔다. 공주는 재빨리 자기 컵에 그 가루를 넣었다.

마법사가 돌아왔을 때 그녀가 부탁했다. “제 잔으로 마시세요. 그러면 우린 앞으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녀는 그와 잔을 바꿨다.

p. 50-51 그 마법사는 포도주를 다 마시고 바닥에 쓰러져 죽었다. 그러자 공주는 알라딘에게 문을 열어 주었다. 그녀는 그의 목을 꺼안았다. 알라딘은 곧바로 죽은 마법사에게로 갔다. 그는 램프를 꺼냈다. 그는 요정에게 궁전을 제자리에 되돌려 놓으라고 명령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그들은 집으로 돌아왔다.

왕은 팔을 잃어버렸다고 한탄하고 있었다. 그러다 고개를 들고는 자신의 눈을 비볐다. 궁전이 돌아와 있었던 것이다!

알라딘과 그의 아내는 함께 행복하게 살았다. 후에 공주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그는 왕이 되었다.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

[제1장] 보물 동굴

p. 58-59 옛날, 페르시아에 두 형제가 살고 있었다. 한 사람은 이름이 카심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알리바바였다. 카심은 돈 많은 여자와 결혼했지만 알리바바는 가난했다.

어느 날 알리바바는 숲에서 나무를 베고 있었다. 그는 한 떼의 남자들이 자신을 향해 오는 것을 보았다. “저들은 도둑이 틀림없어.”라고 그는 혼자 중얼거렸다. 그는 나무 위로 올라가 숨었다.

말을 탄 사람들이 가까이 왔을 때 알리바바는 그들을 세어 보았다. 모두 40명이었다. 그들은 검은 바위 앞에서 말에서 내렸다. 두목이 “열러라, 참깨.”라고 말했다. 바위 문이 마술처럼 열렸다. 그 남자들이 모두 안으로 들어가자 그들 뒤에서 문이 닫혔다.

p. 60-61 알리바바는 나무에 있었다. 잠시 후에 문이 다시 열렸다. 도둑들이 모두 밖으로 나왔다. 그러고는 두목이 말했다. “닫혀라, 참깨.” 그러자 문이 다시 닫혔다. 그런 다음 그 사람들 모두 말을 타고 갔다.

“저 문 뒤에 뭐가 있는지 봐야겠어.”라고 알리바바는 생각했다. 그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되자마자 알리바바는 나무에서 내려왔다. “열러라, 참깨.”라고 그는 바위 앞에서 말했다. 문이 열리고 알리바바는 커다란 동굴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엔 온갖 보물들이 가득했다.

“와! 고급 비단, 카펫트, 금, 은, 그리고 돈자루들이잖아.”라고 알리바바가 외쳤다. 그는 세 마리의 노새에 가능한 한 많은 짐을 실었다. 다 끝나자 알리바바는 이렇게 말했다. “닫혀라, 참깨.” 그러자 문이 닫혔다. 그런 다음 그는 곧장 집으로 갔다.

p. 62-63 집에서 알리바바는 아내에게 그들이 얼마나 운이 좋은지 말했다. 그녀는 정말 행복했다. “금을 재 봐요!”라고 그녀는 말했다. 그러나 그녀는 저울이 없었다. 그녀는 저울을 빌리러 카심의 아내에게 달려갔다. 카심의 아내는 아주 호기심이 많았다.

그래서 그녀는 저울 뒤에 약간의 풀을 발라놓았다. 알리바바의 아내는 보물을 재었다. 금 조각 하나가 저울 뒤에 달라붙었다. 카심의 아내는 금을 보고는 자기 남편에게 말했다. 카심은 알리바바를 찾아갔다. “어떻게 금을 손에 넣었는지 말해다오.”라고 그가 말했다. 그러자 알리바바는 커다란 검은 바위에 대해 설명했다. “나도 보물을 좀 가져와야겠어.”라고 카심이 말했다.

p. 64 다음날 카심은 숲으로 갔다. 그는 보물을 가져오기 위해 많은 노새들을 데리고 갔다.

“열러라, 참께.”라고 카심은 말했다. 그러자 아나나 다름까 문이 열렸다. 그는 안으로 들어갔고 문이 닫혔다. 그는 문 근처에 금이 든 자루들을 쌓아두었다. 그런 다음 그는 떠날 준비를 했다. 그러나 그는 문을 여는 주문을 잊어버렸다. 그는 오랫동안 기억해 내려고 애썼다. 마침내 도둑들이 동굴로 돌아왔다. 그들은 안에 카심이 있는 것을 보고 동굴로 들어닥쳤다. 그들은 칼을 뽑아서 그를 죽였다. 그런 다음 그를 네 동강으로 잘라 동굴 안에 두고 떠났다.

p. 66-67 그날 밤 카심의 아내가 알리바바에게 달려갔다. “남편이 너무 걱정돼요.”라고 그녀는 울부짖었다. “걱정 마세요.”라고 알리바바가 대답했다. “아침까지 그가 돌아오지 않으면 제가 찾아볼게요.”

아침에 알리바바는 세 마리의 노새를 준비했다. 그런 다음 동굴로 떠났다. 안으로 들어가자 그는 공포에 사로잡혔다. 그는 재빨리 형의 시체를 집으로 옮겨왔다. 알리바바는 사람들이 카심이 어떻게 죽었는지 알기를 원하지 않았다. 카심의 아내에겐 모르지아나라는 하녀가 있었다. 그녀는 아주 영리했다. 그래서 알리바바는 그녀에게 자신을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카심의 시체를 꿰매줄 재단사 무스타파를 데려오라.”라고 알리바바가 명령했다.

p. 68-69 모르지아나는 아침 일찍 무스타파에게 갔다. 그녀는 그의 눈 위에 손수건을 묶었다. 그런 다음 그를 알리바바의 집으로 데려왔다. 무스타파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몰랐다.

나중에 알리바바는 마을 사람들에게 카심이 자연스러운 이유로 죽었다고 말했다. 알리바바는 그를 묻었고 모든 것은 비밀로 남겨졌다.

당시에 페르시아 남자들은 한 명 이상의 아내를 거느렸다. 남편이 죽으면 종종 그의 형제가 그 아내와 결혼을 하곤 했다. 알리바바는 형의 아내와 결혼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면 아무도 그의 새로운 보물에 대해 궁금해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알리바바는 카심의 미망인과 결혼했다. 그런 다음 그녀의 집으로 가서 살았다.

[제 2 장] 40인의 도둑

p. 72-73 한편 도둑들은 동굴로 돌아왔다. 그들은 아내 시체가 사라진 걸 알아챘다. “누군가 우리 비밀을 알고 있어.”라고 두목은 소리쳤다. “제가 마을로 내려가서 단서를 찾겠습니다.”라고 한 도둑이 말했다. 우연히 그 도둑은 마을에서 무스타파를 만났다. 무스타파는 자기가 어떤 시체를 꿰맸다고 말했다. “당신이 꿰맨 곳을 알려 주시오.”라고 도둑이 말했다.

“제 눈을 기리고 있어서 그 집이 어디인지 모릅니다.”라고 무스타파는 설명했다. 그 도둑은 무스타파의 눈을 다시 가리기로 마음먹었다. 마침내 무스타파는 그 집을 찾을 수 있었다. 그 도둑은 분로 그 집 문 위에 ‘X’자를 그렸다. 그리고는 친구들에게 돌아갔다.

p. 74-75 얼마 지나지 않아 모르지아나는 문에 있는 표시를 보았다. “이 표시가 뭐지?”라고 그녀는 혼자 생각했다. 그녀는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날까봐 두려웠다. 그래서 거리 양의 문마다 모두 똑같은 ‘X’자를 그렸다.

한편 그 도둑은 자신의 성공을 보고했다. “우리 모두 마을로 갈 것이다.”라고 두목이 명령했다. 그

도둑은 두목을 알리바바가 사는 거리로 데려갔다. 두목은 모든 문에 표시가 되어 있는 길 재빨리 알아챘다. “우리가 속았고, 내기 직접 기보겠다.”라고 두목은 말했다. 그는 무스티피를 데리고 와서 그 도둑을 위해 했던 것과 똑같이 해달라고 요청했다. 결국 그는 알리바바의 집을 찾아냈다.

p. 76-77 두목은 부하들에게 노새 20마리와 기름단지 40개를 사오라고 명령했다. “기름단지 하나는 기름을 채우고 나머지는 비워 두어라.”라고 그가 말했다. 그는 빈 단지마다 부하 한 명씩을 넣고 그것들을 노새에 실었다. “어두워지기 전에 마을로 가자.”라고 그는 부하들에게 말했다.

그는 노새들을 알리바바의 집으로 끌고 갔다. “저는 기름장수인데 목을 곳을 찾을 수 없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우리 집 마당에 당신의 노새들을 두어도 좋습니다.”라고 알리바바가 말했다. “그리고 당신은 저희 집에서 주무세요.”

그 두목은 마당에 단지들을 내려놓았다. “내 휘파람 소리를 들으면 단지에서 나와야 한다.”라고 그는 부하 한 명 한 명에게 속삭였다.

p. 78-79 마침 모르지아나는 기름이 필요했다. 그녀는 그 항아리들 중 하나에서 기름을 약간 가져와도 될 거라고 생각했다.

마당에서 그녀는 “시간 됐나요?”라고 나지막히 말하는 남자의 목소리를 들었다. 단지 중 하나에서 나는 소리였다. 그녀는 깜짝 놀랐지만 평정을 유지했다. “이직이다. 하지만 곧 시간이 될 거야.”라고 그녀는 속삭여 대꾸했다.

“알리바바가 위험에 처했어.”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그녀는 커다란 주전자에 기름을 가득 채웠다. 그녀가 그것을 불 위에 올려놓자 기름이 끓기 시작했다. 그런 다음 그녀는 단지마다 기름을 부었다. 그 기름으로 안에 있던 도둑들이 모두 죽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자기 방으로 돌아갔다. 그녀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려고 창밖을 지켜보았다.

p. 80-81 잠시 후 두목은 자기 방 창을 열었다. 그는 항아리에 돌을 던졌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는 너무 놀랐다. 그는 밖으로 나가서 부하들이 모두 죽은 걸 발견했다. 그는 즉시 동굴로 돌아갔다. 모르지아나는 두목이 도망가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자신이 알리바바의 가족을 구해서 매우 기뻐했다. 다음날 아침 그녀는 알리바바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얘기했다.

다시 동굴로 돌아온 두목은 복수를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변장하고 마을로 갔다. 그는 큰 가게를 빌렸다. 그는 그곳을 비단과 다른 물건들로 채웠다. 그는 마을사람들에게 자신이 상인이며 이름은 코기아 핫산이라고 말했다.

p. 82-83 알리바바에게는 역시 상인인 아들 하나가 있었다. 그의 상점은 코기아 핫산의 가게와 가까웠다. 두목은 이것을 알고 있었고 그 아들과 친구가 되었다. 어느 날 그 아들이 저녁 식사를 하자고 코기아 핫산을 그의 집으로 초대했다. 코기아 핫산은 알리바바의 집으로 갔다. 그는 셔츠 속에 칼을 갖고 있었다. 저녁 식사 때 그는 소금을 먹지 않으려고 했다. 당시 페르시아엔 한 가지 풍습이 있었다. 소금을 나눠 먹은 후에 사람을 죽이는 건 나쁜 짓으로 간주되었다. 모르지아나는 그 손님이 소금을 먹지 않으려 하는 걸 눈치챘다. “이 사람은 그 기름장수가 틀림없어.”라고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녀는 자기가 알리바바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p. 84-85 모르지아나는 훌륭한 무용수였다. 그녀는 종종 손님들을 위해 춤을 추었다. 식사가 끝난 후 그녀는 공연을 하러 왔다. 그녀는 한손에는 탬버린을, 다른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었다. 그녀는 한 사람 한 사람 가슴 위에 칼을 올려놓곤 했다.

그녀는 이것이 춤의 일부인 척 했다. 그러나 코기아 핫산 앞으로 왔을 때 그녀는 그의 가슴에 칼을 꽂았다. 그는 땅에 쓰러져 죽었다.

“무슨 짓이냐”라고 알리바바가 소리쳤다. “이 사람은 기름장수입니다.”라고 모르지아나가 설명했다. “그는 당신을 죽일 계획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셔츠를 풀고 알리바바에게 그의 칼을 보여 주었다. “네가 내 목숨을 구했구나.”라고 알리바바가 말했다. 그는 그녀에게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물었다.

얼마 후 알리바바의 아들은 모르지아나와 결혼했다. 그들 모두 오래도록 평안하게 살았다.